

#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향토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

- 제주도 서부 해안도로를 사례로 -

오영희\*

<차례>

- I. 서론
- II. 현장학습의 중요성과 사회 교과서 구성
- III. 제주도 서부 해안도로 현장학습 코스
- IV. 현장학습 코스의 적용과 문제점
- V. 결론

## 1. 서론

사회과에서는 삶의 터전인 국토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의 의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은 물론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시기에서의 인식을 중요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거주하는 향토 사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나 교재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지역 실정에 알맞게 재구성하고 고장과 향토(지역사회)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

\* 제주도 한천초등학교 교사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경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사회과 교육은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교사나 학생 모두가 다른 교과보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1)</sup>. 이러한 사실은 학습내용이 너무 많고, 학습자의 경험이나 인식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위주로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로 이어지는 수업 현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의 학습 주제가 지루하거나 제각기 성격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실태와도 관련성이 미미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사회과 교과는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여전히 어려운 교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 교육에서 학습자의 능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주변에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사실과 사회 현상을 전제로 하는 지역화는 학습자의 능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고나 시각에서 검토해 본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향토에 대한 이해나 인식을 배가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 중의 하나가 현장학습이다. 현장학습을 통한 교육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보고, 듣고, 느끼게 함으로써 생생하고 실질적인

1) David W. Van Cleaf, 《사회과 교수-학습론》, 남경희 외 옮김, 교육과학사, 2001, pp.17-18.

학습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장학습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학습 경험의 축적과 지식 습득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현장학습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학습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즉, 교육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학습 관련 주제 선정을 비롯하여 현장학습 과정안 작성, 교수·학습 방법 적용, 장소 선정, 관련 자료 수집 등 총체적인 계획 수립이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직시한다면 우선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부합할 수 있는 현장학습 장소나 코스를 개발하여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부분적으로나마 현장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학교 수업에서 행해지는 현장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현장학습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현장학습을 위한 구간으로 설정한 후, 실제로 학습 주제나 학년 또는 소지역별 학습 대상을 기초로 하여 활발한 현장학습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지역 내의 학습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과에서 향토 이해를 위한 효율적인 학습의 방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부 해안지역(용담 3동과 도두 1·2동)을 구체적인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 사례로 선정하였다. 제주도 서부 해안지역을 사례로 선정한 배경은 첫째, 제주도 용담 3동~도두 2동의 해안도로변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진숙해질 수 있음은 물론 학습과정에서도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이 지역에는 자연환경은 물론 역사와 문화 및 생활과 관련된 학습요소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심이다. 셋째, 제주도 소재 학

교에서 접근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거리 면에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과에서 내용과 방법의 지역화를 위한 현장학습은 향토의 지형, 기후, 산업, 문화유산, 지이사회 문제 등 모든 주제를 통해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에 한정하며 개발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은 제주 시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 II. 현장학습의 중요성과 사회 교과서 구성

### 1. 현장학습의 중요성

현장학습(field learning)이란 학습의 장을 사회적인 사실과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으로 옮겨 그 현장에서 견학, 면접, 조사, 관찰, 캠핑 등의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습 방법이다<sup>2)</sup>. 현장학습은 야외관찰, 야외조사, 현장연구(field work) 또는 현지조사(field studies)의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sup>3)</sup>.

현장학습은 관찰의 크기에 따라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 대상을 접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거시적인 방법은 고층 옥상이나 고지에서 공장의 분포, 도시의 모습 등을 개관하는 것이며, 미시적 방법은 농장에 들어가 작물의 종류, 재배 방법, 작물의 생장 모습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방법은 취락의 형태나 토지의 이용 모습을 실제로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은 질문지를 돌려 회답을 얻어 통계를 낸다

2) 강상배 외, 《신간 사회과 교육론》, 교육출판사, 1996, p.401.

3) 권오정 외, 《사회과 교육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85, p.415.

든지 탐방 기관에서 제시된 여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설명 등을 듣고 필요한 학습 자료를 얻는 것이다<sup>4)</sup>.

현장학습의 학습 영역으로는 지형, 기후, 토양, 식생 등 자연 현상의 영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등의 인문 현상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수 있고 그 소재 또한 매우 많다.

이러한 현장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첫째, 자연적·사회적 현상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인의 행동양식을 습득할 수 있다. 둘째, 현장학습은 감각적 인식이 가능하므로 학습한 것을 학습자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자기의 환경에 대한 통찰을 깊게 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사고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연구심을 배양한다. 넷째,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등의 제반 활동을 함께 하므로 교육적 과정을 풍부히 하며 지식을 심화, 확대시킨다. 다섯째, 자연적인 호기심을 이용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지속시켜준다.

결국 가까운 지역 사회를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며, 학생 시절부터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도 능동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된다.

## 2.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현장학습 내용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은 대체로 그 시대에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가치관, 기능, 태도 관련 내용을 학습자의 성장과 발전에

4) 최창석, "향토 단원의 현장학습 방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12.

5) 오영태, 《사회과 교육론》, 형설출판사, 1996, pp.255-256.

도움이 되도록 짜여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학습자에게 모든 것을 전부 가르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시너지 민회, 지위의 특수성 또는 학교와 학급의 특수성, 나아가 학생들의 실태까지 고려한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3학년 고장의 생활 영역,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는 교과서 내용 전체가 지역화 된 교과서이다. 지역화 된 교과 내용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며, 학생들이 사회과에 대한 인식, 흥미, 의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향토에서 국토로, 더 나아가 세계로의 지리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동심원적 확대 학습의 기본 단원으로서도 의미가 깊다. 이와 같이 중요성을 띤 지역화 된 교과 내용은 그 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인 현장학습이나 다른 대안적 학습 방법이 동원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학생 스스로 지역 학습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탐구력이 길러지며 이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실생활의 응용에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에 있는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대하여 교사가 의도적, 계획적, 구체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의 흥미와 인지 발달, 신체 발달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 면에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장학습이 시간적,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학습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대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습할 내용을 명료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을 세우며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기대했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다음 <표 1>에서는 제주시 서부 해안지역에 있는 구체적 학습대상을 각 학년별 지역화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한 학습 대상이다.

제주시 서부 해안지역을 사례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제주도 용담 3동~도두 2동의 해안도로변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쉽게 친숙해질 수 있음은 물론 학습 과정에서도 충분히 흥미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는, 용담 3동~도두 2동의 해안도로 구간에는 제주의 자연은 물론 제주 주민들의 역사와 문화 및 생활과 관련된 학습 요소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제주도 소재 초등학교의 입장에서는 접근하는데 비교적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별반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 학습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 1〉 단원별 현장학습 관련 내용 추출

학년	단원	학습할 내용	관련 현장학습 장소
3-1	2-1. 자연을 이용하는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고장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모습</li> <li>• 옛날과 오늘날의 자연 이용 모습</li> </ul>	다끄내 포구, 다끄내 도내불, 다끄내 불, 어영 마을 모살원 • 동물원, 물래물 마을 언물 (영물)
	2-2.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li> </ul>	다끄내 포구, 흘개 (신사수 포구)
3-2	1-2. 교통·통신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날과 오늘날의 통신 방법</li> </ul>	수근 연대, 도원 봉수터
	2-1. 전해오는 민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고장에 전해오는 행사, 이야기</li> </ul>	도두 1동 포제단
4-1	1-1. 지도에 나타난 제주도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름과 등고선</li> </ul>	도두봉
	1-2. 우리 시·도의 자연 환경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시·도의 기후와 지형 등 자연 환경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li> </ul>	다끄내 포구, 어영 마을 모살원· 동물원, 물래물 마을 언물 (영물), 다끄내 불,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

	1-3. 우리 시·도의 달라진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의 달라진 모습</li> <li>• 조상들의 발자취 - 우리 고장 문화제의 특징</li> </ul>	다끄내 포구, 다끄내 도대불, 물래물 마을 언몰(영몰), 수근 연대, 물래물 마을 방사탑 1·2호.
4-2	1-2. 박물관 견학과 문화제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제 현장학습</li> </ul>	다끄내 포구, 다끄내 해신당, 다끄내 도대불, 수근 연대, 물래물 마을 언몰(영몰), 물래물 마을 방사탑 1·2호, 도원 봉수터
5-1	1-1. 우리 생활과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나라 지형의 특징</li> <li>• 지형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li> </ul>	다끄내 포구, 어영 마을 모살원·동물원, 물래물 마을 언몰(영몰), 다끄내 문,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
	1-2. 자연 환경을 이용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환경을 이용한 생활</li> </ul>	
	2-2. 촌락 지역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촌락의 어제와 오늘</li> </ul>	다끄내 포구, 흘개 (신사수 포구)
5-2	3-2. 우리 나라의 생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제사에 담긴 뜻</li> <li>• 조상들의 종교 생활</li> </ul>	다끄내 해신당, 어영 마을 언뎃당, 도두 1동 포제단, 도두 오름 허릿당, 물래물 마을 방사탑 1·2호
6-1	2-1. 새로운 사회로의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후기의 민간 신앙</li> </ul>	다끄내 해신당, 어영 마을 언뎃당, 진빌래원 왕돌 할망당, 도두 1동 포제단, 도두 오름 허릿당, 물래물 마을 방사탑 1·2호

[자료 : 현장학습 대상과 학년별 사회 교과서 내용과의 대비에 의해 작성]

### Ⅲ. 제주시 서부 해안도로 현장학습 코스

#### 1. 제주시 서부 해안도로의 특성

해안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지역에는 용담 3동과 도두 1·2동이 있다. 이 지역은 제주시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해안변에 접한 농어촌 복합 지역으로서 용연과 용두암을 시작으로 레포츠 공원, 해안도



로, 도두봉에 이른다.

제주도는 어느 마을의 해안에서 보나 비슷한 풍경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암이 흘러나온 뒤부터 심하게 풍화·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평평한 암반 지대가 있는가 하면 버섯 모양이나 빵 껍질 모양 등 각양각색의 바위 형태로 남아있는 지대도 있다. 어떤 곳에서는 거칠고 험한 현무암으로 구성된 암반 지대가 펼쳐지기도 한다.

제주시 서부 해안도로는 용두암을 거쳐 공항 뒷길로 이어지는데 용두암을 출발하여 서쪽으로 가다보면 레포츠 공원과 용담 어촌계, 다끄내 포구가 있고 이어 수근동, 어영 마을을 지난다. 원래 이 곳에는 큰 마을들이 있었으나 제주국제공항의 건설과 확장을 거치면서 그 기능과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완전히 헐려 신성 마을, 제성 마을, 명주 마을, 동성 마을 등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다끄내 포구앞 용담 레포츠 공원은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 여름이면 많은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찾는 명소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해안도로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후 지금은 각종 음식점이 들어선 카페 거리로 바뀌어 지금은 주변의 해안과 함께 제주 관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관광 요충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끄내 마을 포구에서 도두 마을에 이르는 해안도로변에는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뛰어난 자연 경관 이외에도 오랜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학습 대상과 인문·자연 지리적으로 학습 가치가 있는 학습 대상들이 다수 분포한다.

이처럼 제주의 자연 환경 요소(용암류 및 화산쇄설층, 용천수, 오름)와 인문 환경 요소 즉 역사적·생활 문화적 유적(포구, 도대불, 원담, 신당, 포제단, 방사탑, 연대, 봉수터)등 많은 현장학습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

부 해안도로는 현장학습 대상 지역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장학습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래의 표 '해안도로변에 분포하고 있는 학습 대상'에 나타나 있다. <표 2>은 학습 대상에 관한 주요 특징과 함께 관련되는 사실들을 정리한 것이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표 6>에서 제시한 참고 문헌에서 얻을 수 있다.

<표 2> 용담 3동-도두 1·2동 해안도로변에 분포하는 학습 대상

학습 대상 번호	구분	지정번호	자 료 명	영역	소 계 지
1	포구	비지정	다끄내 포구	역사 지리	용담 3동 다끄내 포구
2	당(堂)	비지정	다끄내 해신당	역사	용담 3동 다끄내 포구 내
3	등대	비지정	다끄내 도대불	역사 지리	용담 3동 다끄내 포구 내
4	용천수	비지정	다끄내 물	지리	용담 3동 다끄내 포구 내
5	연대	제주도 기념물 제20-8호	수근 연대	역사	용담 3동 2290번지
6	당(堂)	비지정	어영 마을 연덧당	역사	용담 3동 어영 마을 연대 서쪽 30m 지점
7	원(垣)	비지정	어영 마을 모살원·동물원	역사 지리	용담 3동 어영 마을 앞 해안가
8	용천수	비지정	물래물 마을 언물(엉물)	지리	도두 2동 물래물 마을 (구사수동) 해안가
9	당(堂)	비지정	진빌래원 왕돌 할망당	역사	도두 2동 물래물 마을 (구사수동) 해안가
10	돌탑	제주도 민속자료 제8-1, 8-2호	물래물 마을 방사탑 1·2호	역사	도두 2동 692-11
11	포구	비지정	흘캐(신사수 포구)	역사 지리	도두 2동 신사수동 부락 내
12	지형	비지정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	지리	도두동 산 1번지 일대

13	재단	비지정	도두 1동 포재단	역사	도두봉 수은사 뒷쪽
14	당(堂)	비지정	도두 오름 허릿당	역사	도두봉 남쪽 사면
15	봉수	비지정	도원 봉수터	역사	도두동 산 1번지

[자료 : 현지조사 및 「문화유적분포지도-제주사-(1998)」에 의해 작성]

## 2. 사회과 현장학습을 위한 코스

### 가. 코스 개발의 기본 조건

현장학습 관련 선행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초등학교 사회과 관련 현장학습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한 결과 현장학습 관련 자료나 정보가 미미하거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체계적인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학년별 현장학습의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현장학습에 대한 시범적인 코스를 개발하였다. 이 코스들의 특징은 기능하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활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 지역 내에 분포하는 현장학습 장소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코스화 하였다(<표 3>, <표 4>, <표 5>).

본 연구에서 현장학습의 코스를 개발하는데 기본 조건은 ①학년별 학습 내용(학습 내용의 난이도) ②현장에서의 전체 학습시간 ③학습량 ④전체의 이동거리 ⑤체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다. 여기에서의 학습시간은 현장에서 조사·관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시간까지도 포함하였다. 또한, 현장학습의 내용 선정과 조직 및 수준과 범위는 교육과정의 수준에서 결정하며, 교육과정의 수준에서 지도되고 학습되도록 하였다<sup>6)</sup>.

코스화는 이들 기본적 조건을 신중히 고려한 후 학습 대상이 분포하

6) 정광중, "초등 사회과를 위한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제주시 화북 마을을 사례로-", <초등사회과교육>, 제11집, 1999, pp.299-330.

는 지점과 지점을 연계시켜 아래와 같이 지역별, 주제별, 학년별로 3개의 코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A형의 경우는 용담 3동, 도두 2동, 도두 1동 등 행정구역 별로 분포하는 학습 대상읍 중심으로 하여 각각 A-1형, A-2형, A-3형의 세 가지로 개발하였다(〈표 3〉). 이 코스들의 장점은 현장학습 해당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는 학습 대상들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을 인솔하여 현장학습을 갈 경우 학습 대상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근거리에 있는 것이 학생 통솔에 있어서도 훨씬 수월하다. 또한 도보로 이동하면서 학습 대상들을 조사할 경우 지도를 보면서 학습 대상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다.

〈표 3〉 지역별 현장학습 코스

유형	주제	현장학습 코스	학습 시간	관련 학년
A	A-1 용담 3동	다끄내 포구 → 다끄내 도대밭 → 다끄내 해신당 → 다끄내 물 → 수근 연대 → 어영 마을 연딿당 → 어영 마을 모살원 · 동물원	1.5시간	3, 4 5, 6
	A-2 도두 2동	몰래물 마을 언물(영물) → 진빌래원 왕돌 할망당 → 몰래물 마을 방사탑1·2호 → 흘개(신사수 포구)	1시간	5, 6
	A-3 도두 1동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 → 도두 오름 허릿당 → 도두 1동 포제단 → 도원 봉수터	1시간	3, 4, 5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B형에는 해안도로변에 있는 문화 유적들을 주제별로 3가지 코스로 나누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대상을 구성하였다. 제주인의 신앙 생활을 토대로 설정한 B-1형, 통신 시설과 어로 시설을 주제로 설정한 B-2형, 제주의 지형 및 용천수를 주제로 설정한 B-3형으로 개발하였다(〈표

4>. 주제별로 현장학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한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보조교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한 가지씩 주제를 선택하여 조사 활동을 벌이는 방법도 좋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교실내의 학습으로 돌아와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표 4〉 주제별 현장학습 코스

유형	주제	현장학습 코스	학습 시간	관련 학년
B	B-1 제주인의 신앙 생활	다끄내 해신당 → 어영 마을 연덕당 → 진빌래원 왕불 할방당 → 봄래밭 마을 방사탑1·2호 → 도 두 오름 허릿당 → 도두 1동 포제단	2시간	5, 6
	B-2 통신시설과 어로 시설	다끄내 도대밭 → 수근 연대 → 어영 마을 모살 원 · 동물원 → 도원 봉수터	2시간	3, 4
	B-3 제주의 지형 및 용천수	다끄내 포구 → 다끄내 물 → 물래물 마을 언물 (영물) → 흘캐(신사수 포구) → 도두봉 북서쪽 사 면 지형	2시간	4, 5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C형은 교육과정에 나타난 내용과 관련하여 각 학년별로 조사 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설정된 코스이다(〈표 5〉). 코스를 한꺼번에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일년에 두 번 정도 갈 수 있다면 비슷한 대상끼리 모아서 코스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 때 각 학년별로 비교적 많은 학습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교사의 설명을 위주로 하고, 학생들은 주로 관찰 학습을 하는 학습 형태로 진행되어도 좋다. 각 학습 대상마다 학생들이 조사 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관찰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조사 활동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학습 대상별로 선택성과 난이도를 항상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의 많고 적음이나 조사시간의 부족 등에 대한 문제는 교사의 재량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표 5〉 학년별 현장학습 코스

유형	시기	현장학습 코스	학습 시간	관련 학년	
C	C-1	3학년	다끄내 포구 → 다끄내 도대불 → 다끄내 해신당 → 다끄내 물 → 수근 연대	1시간	3학년
	C-2	4학년	다끄내 포구 → 다끄내 도대불 → 다끄내 물 → 수근 연대 → 물래물 마을 언물(영물) → 물래물 마을 방사탑1·2호 → 도원 봉수터 →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	2시간	4학년
	C-3	5학년	다끄내 포구 → 다끄내 도대불 → 다끄내 해신당 → 어영 마을 연덧당 → 어영 마을 모살원·동물원 → 물래물 마을 언물(영물) → 물래물 마을 방사탑1·2호 → 흘캐(신사수 포구) →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	3시간	5학년
	C-4	6학년	다끄내 해신당 → 어영 마을 연덧당 → 진빌래원 왕돌 할망당 → 물래물 마을 방사탑1·2호 → 도두 오름 허릿당 → 도두 1동 포계단	2시간	6학년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나. 현장학습 코스별 특징

이들 코스는 학습 대상(장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학습 시간, 학습 대상, 학년 혹은 학습자들의 인원수에 따라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학습에 임할 때는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 1) A 코스

### 가) A-1

다끄내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분포하는 학습 대상을 포함한 코스이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3~6학년 교과 과정과 관련된 학습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학년에서든 현장학습이 가능하며, 각각 성격이 다른 학습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대상에 대한 기대감도 줄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설명을 위주로 하였을 때 각 학습 대상마다 10분 정도로 산정하였으나 현장에서 어떠한 학습 활동을 할 것인지에 따라 학습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학습 대상이 많기 때문에 3·4학년은 교사의 주도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5·6학년은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위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다끄내 포구내에는 용담 어촌계가 있고 지금도 포구 근처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므로 그들이 하는 일을 관찰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나) A-2

1970년경에 제주국제공항의 확장 공사로 마을은 없어져 버렸지만 지금은 옛 터에 비석을 세워 몰래물 마을의 역사를 대변해 주고 있는 언몰(영몰)을 중심으로 하여 5개의 학습 대상을 코스화하였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다. 방사탑이나 용천수 이외에도 방사탑 남쪽으로 꽤 넓은 빈지에 심어있는 내나무 밭이나 우물이 있던 곳과 연관지어 몰래물 마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언몰(영몰)과 할망당을 살펴본 후 길 건너에 있는 방사탑에 가려면 도로가 굽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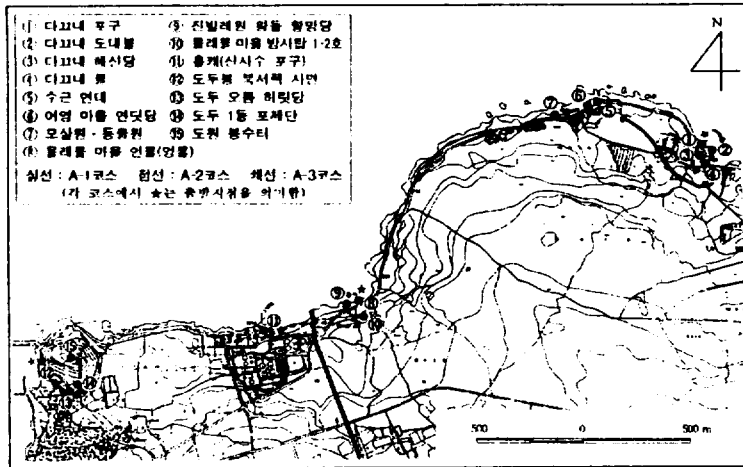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다) A-3

도두봉에 있는 3개의 학습 대상(봉수터, 포제단, 당)과 주변에 있는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을 연결시켜 코스화하였다. 도두 포구에서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을 조사·관찰하고 난 후, 걸어서 도두 오름 허릿당→도두 1동 포제단→도두봉 정상에 있는 도원 봉수터로 이동하며 학습하면 된다.

학습 시간은 각 장소마다 10분 정도로 하면 충분하지만, 특히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은 지층이나 화산 활동으로 생긴 암석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므로 과학과와 통합하여 세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넉넉히 시간을 주어 지도하여도 좋다.

코스 이동에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안정된 코스이므로 탐구심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전개하면 좋다.



[그림 1] A-1, A-2, A-3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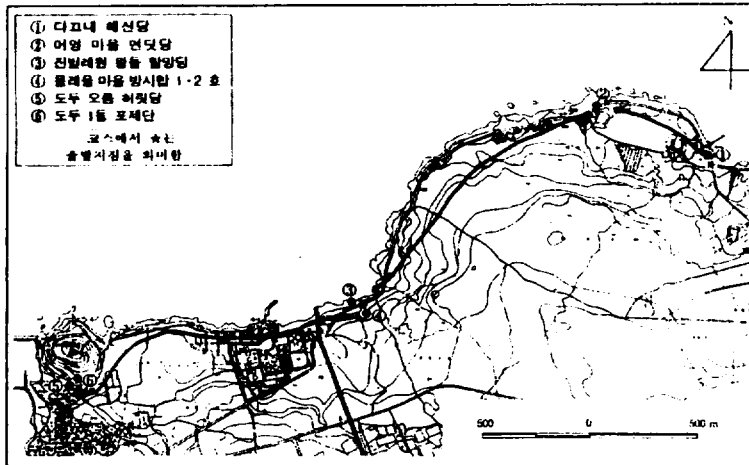
2) B 코스

가) B-1

앞서 제시한 코스와는 달리 제주 서민들의 신앙 생활을 주제로 코스를 구성하였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지도 모르나 오랜 세월에 걸쳐 가정의 무병무사나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빌었던 민간 신앙인 만큼 쉬운 용어로 설명한다면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 대상으로 구성된 코스이다.

학습 대상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끄내 해신당, 몰래물 마을 방사탑 1·2호, 도두 1동 포제단으로 그 대상을 3개 정도 선택하여 학습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내용의 난이도나 학생들의 체력 또는 코스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 B-1 코스

나) B-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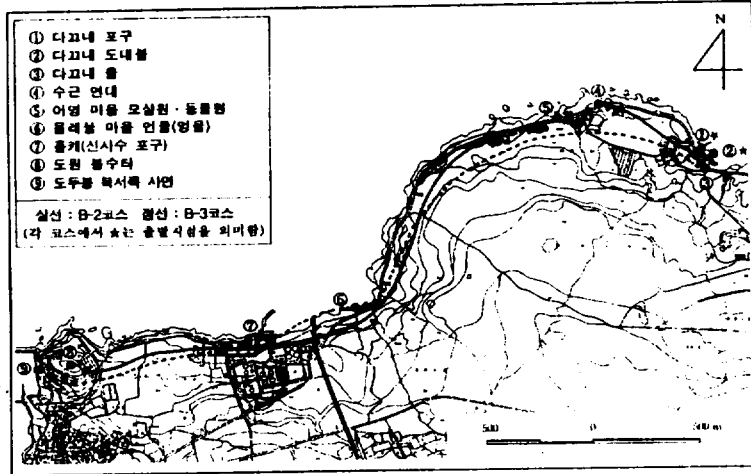
통신 시설과 어로 시설을 주제로 4개의 학습 대상으로 구성된 코스이다. 3학년 2학기 교통·통신의 발달 및 4학년 1학기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관련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두봉 정상에 있는 도원 봉수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학생들의 체력 소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가 멀다. 또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코스이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기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안전에도 유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도두봉에 도착해서 수근 연대와 도원 봉수터에서의 옛날 통신방법을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거나 역할 놀이를 흥미롭게 전개하면서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다) B-3

제주의 지형 및 용천수를 주제로 한 코스로 학습 대상은 비교적 적지만 이동하는 거리는 가장 길다. 다끄내 포구와 다끄내 물을 조사·관찰하고 걸어서 몰래물 마을 언물(영물)까지는 약 2km 이상, 몰래물 마을 언물(영물)에서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도두 포구까지 약 1.5km 정도로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이동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다끄내 포구와 흘개(신사수 포구)를 서로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도 좋으며, 기회가 닿으면 포구에서 일하는 주민에게 포구의 변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게 하는 적극적인 참여도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 시간은 두 포구를 10분 정도로 하고 몰래물 마을 언물(영물)에서 5분,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을 학습하는데 20분 정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3] B-2, B-3 코스

### 3) C 코스

#### 가) C-1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끄내 포구 안에 있는 학습 대상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수근 연대를 더 포함하여 코스화하였다. 그러나 해안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편이므로 조사 학습 할 때나 이동할 때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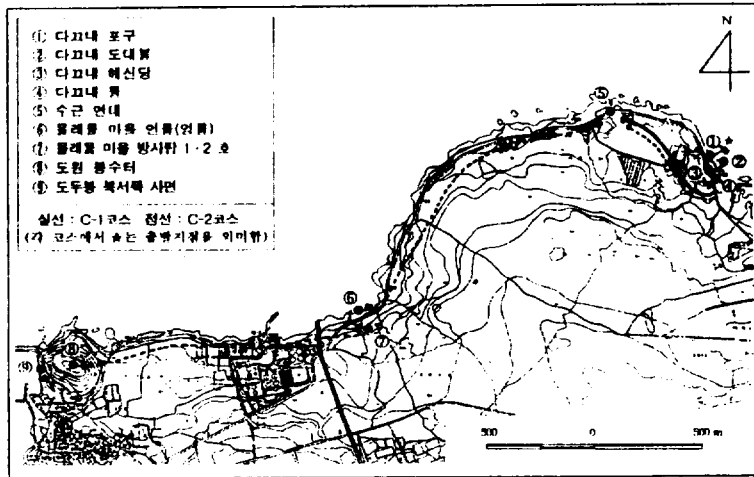
단순히 교사의 설명을 위주로 하여 학습을 실시한다면 20분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포구를 중심으로 도대불과 해신당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여 발표하게 하거나 스케치하기, 글로 쓰기, 인터뷰하기, 마을지도 그리기 등의 학습 활동을 벌인다면 학습 시간은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 나) C-2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코스이다. 4학년은 지역화시켜 학습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므로 해안도로에 있는 학습 대상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포함시

킨 경우로 C-1 코스와 비교할 때, 수근 연대 이후에 있는 4가지 학습 대상이 더 포함되어 있다. 3학년때 C-1코스를 답사하였다면 이미 학습한 것은 제외시켜 학습량과 이동 기리를 줄이는 것도 좋다.

다끄내 포구에서 도대불과 다끄내 물을 관찰한 후 수근 연대까지는 초등학교생인 경우에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나, 다끄내 포구에서 몰래물 마을 언물(영물)까지, 몰래물 마을 방사탑에서 도원 봉수터까지는 버스로 이동해야 한다. 가는 도중에는 쉴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도두봉에 가서 중간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학습 시간은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정도 필요하다.



[그림 4] C-1, C-2 코스

다) C-3

5학년용 코스로서 9개의 학습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내용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원들을 모두 포함하다보니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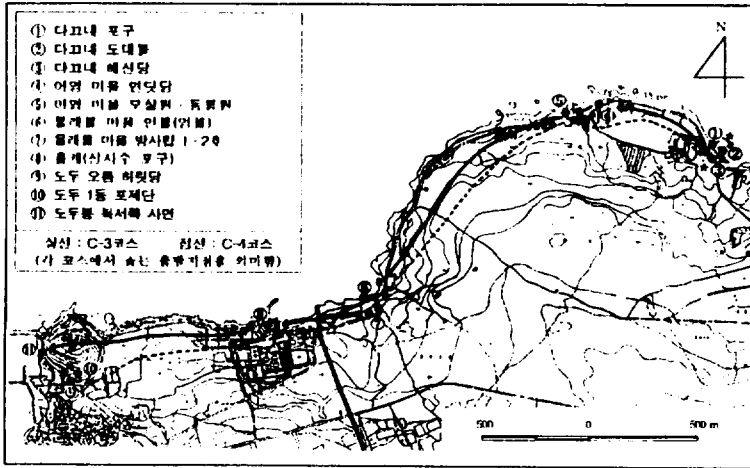
대상도 가장 많고 이동 거리 또한 가장 길다. 따라서 교실내의 수업에서 미리 학습해 두고 나서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관찰 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학습 시간은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산정하였지만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좋다.

고장의 산, 유적지, 복잡한 도로 등도 같이 살펴보고 더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계획해 보게 하거나 마을이 이 곳에 자리잡게 된 까닭을 생각하며 학습에 임한다면 훨씬 더 좋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리라 생각된다.

라) C-4

6학년용 코스로서 6학년 1학기 2단원 조선 후기의 민간 신앙과 관련하여 학습 대상을 구성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고장에 있는 유형·무형 문화재의 특징을 찾아보게 하고, 마을 제사 또는 굿의 계승 발전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서 이어가야 할 미풍 양속과 타파해야 할 미신적인 면에 대해 토의하는 학습을 통하여 당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고학년인 경우 한 개의 대상을 세밀하게 조사·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관심 있는 대상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였다가 돌아올 때 합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조교사의 책임 하에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림 5] C-3, C-4 코스

다. 교수·학습 도움 자료

교수·학습 도움 자료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정보로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도표, 지도, 사진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제시한 학습 대상별로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과 관련 자료들은 <표 7>에 참고 문헌에 대한 관련 페이지를 명시하였으므로, 그것을 복사하거나 현장에 지참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표 6〉 학습 대상별 참고 문헌

참 고 문 헌	① 용담동지편찬위원회, <용담동지>, 용담동지편찬위원회, 2001.
	② 물래물향토지 발간위원회, <물래물 향토지>, 물래물향토지 발간위원회, 2000.
	③ 이덕희, <제주의 도대밭>, 가시아히, 1997.
	④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제주시)>, 제주시, 1998.
	⑤ 제주도,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1997.
	⑥ 제주도, <제주의 물, 용천수>, 제주도, 1999.
	⑦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중보판)>, 제주도, 1998.
	⑧ 제주도, <제주의 오름>, 제주도, 1997.
	⑨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시의 문화유적>,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1992.
	⑩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도의 옛 기록-1878년~1940년->, 제주시 우당도서관, 1995.
	⑪ 제주시·제주문화원, <제주시 옛 지명>,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⑫ 제주도, <제주의 방어유적>, 제주도, 1996.
	⑬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시의 옛터>, 제주시, 1996.
	⑭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제주의 문화유산>,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1995.
	⑮ 현경희, "제주도 스킨리이론의 사면형태와 발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0.
	⑯ 좌승훈, <제주의 땅 의미찾기-포구>, 나라출판, 1996.
	⑰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 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표 7〉 참고 문헌에 대한 관련 페이지

대상 번호	학습 대상	참고 문헌 및 관련 페이지
1	다끄내 포구	[4] p. 64. [9] pp. 236~237. [11] p. 261. [14] pp. 142~144.
2	다끄내 해신당	[1] p. 184. /pp. 246~247.
3	다끄내 도대밭	[3] pp. 18~19.
4	다끄내 물	[11] p. 262.
5	수근 연대	[1] pp. 186~187. [4] p. 64. [7] p. 320. [9] p. 92. [11] p. 263. [13] pp. 144~145. [17] pp. 90~94

6	어영 마을 연당당	㉠ p. 187. /pp. 245~146. ㉡ p. 65. ㉢ p. 207. ㉣ p. 262.
7	어영 마을 모살위 · 동물위	㉠ p. 215. ㉡ p. 143. ㉢ p. 65. ㉣ pp. 277~278. ㉤ p. 585. ㉥ pp. 166~167. ㉦ pp. 9~10.
8	물래물 마을 언뜰(영뜰)	㉡ pp. 123~125. ㉢ p. 565.
9	진빌래원 왕돌 할망당	㉣ p. 65. ㉤ p. 296. /p. 565.
10	물래물 마을 방사탑 1·2호	㉡ p. 96. ㉢ p. 64. ㉣ pp. 161~163. ㉤ p. 295. ㉥ pp. 382~383. ㉦ pp. 90~94. /pp. 100~103.
11	흘개(신사수 포구)	㉧ pp. 85~88.
12	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	㉨ pp. 4~9. /pp. 60~61.
13	도두 1동 포제단	㉣ p. 62. ㉤ p. 223. ㉥ p. 345.
14	도두 오름 허릿당	㉣ p. 62. ㉤ pp. 291~292.
15	도원 봉수터	㉡ p. 41. ㉢ p. 62. ㉣ p. 105. ㉤ p. 91. ㉥ pp. 141~142.

#### 라. 답사자료

향토 문화재 조사는 가능하면 많은 준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계획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역사와 문화의 내용은 몇 배 혹은 몇 십 배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지의 선정 문제이다. 어디를 가서 어떤 것을 볼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없이는 학습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사는 조사의 안내자이자 해설자이다. 따라서 학습 목적에 맞추어 대상을 적절히 선정하고 그 곳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답사자료는 현지조사와 더불어 <표 6>과 <표 7>에 제시한 교수·학습 도움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 서부 해안도로변(용담 3동, 도두 1·2동)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구성하고 사진과 함께 문화 유적에 대한 해설, 탐구 문제, 유사 학습 장소 등을 내용으로 만들어 투입하



였다.

학생용 답사자료는 현장학습(답사) 일주일 전에 교사용 답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하여 배부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전 탐구 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현장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 IV. 현장학습 코스의 적용과 문제점

##### 1. 현장학습 코스의 적용

제주시 서부 해안도로를 사례로 개발한 현장학습 코스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시내 초등학교 4학년 37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현장학습 코스 유형 중 C-2코스를 적용하였다. 아침 활동 시간과 재량 시간을 이용한 사전 활동은 현장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및 소집단별 학습 내용을 정하고 현장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사전 과제로는 제주도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사진 조사일 하였다. 사후 율농 단계에서는 사회 시간과 재량 시간을 이용하여 관찰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고 현장학습 보고서를 작성, 발표 시간을 가졌다.

##### 가. 활동 전개

사전 활동 단계에서는 현장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주시 서부 해안도로에 분포하고 있는 학습 대상들에 대한 탐구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업을 전개하였으며, 교사가 사전에 답사하여 찍은 사진 자료와 이야기 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학습

하였다. 이 때 학생들은 주제를 정해 집중 탐구할 내용을 정하고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활동 계획서에는 사전에 조사할 내용, 역할 분담, 현장학습 장소에서 지킬 일 등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현장학습일까지 학생들은 문헌 조사,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조사, 어른께 여쭙어 보기 등의 방법으로 학습 대상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 잘 되지 않아서 교사가 현장학습 자료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사전 탐구 활동으로 현장 체험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현장 활동 단계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활동 전에 현장학습시 지켜야할 점을 다시 확인하고 학습 장소로 이동하며, 이동하기 전에 학부모 보조교사에게 현장학습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이동하거나 조사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지에서는 문화 유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집단별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 유적을 선택하여 관찰·조사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장 활동이 끝나면 부족한 자료의 보충을 위하여 며칠 정도의 정리 시간을 주고 사후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개인별 현장학습 보고서 작성 및 보완하기, 소집단별 보고서 발표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발표가 현장학습의 목표는 아니므로 발표는 어려운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부담 없이 표현하는 쉬운 방식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희미해져서 학습 효과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 바로 사후 활동을 실시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심화·발전학습으로 유적지에 대한 안내문 쓰기, 소책자로 만들기, 유

적 엽서 만들기, 스크랩북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문화 유적에 대한 유래, 특징, 만들어진 배경,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 등을 이해하고 문화재 보호 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 나. 평가

현장학습 보고서, 자기 평가 기록부, 포트폴리오, 교사의 관찰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자기가 얻은 지식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현장학습 계획서, 보고서, 전시회 등 결과물에 의한 평가 뿐만 아니라 관찰, 면접, 자기 평가 기록부,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 다. 현장학습 후 학생들의 태도 및 소감

현장학습이 끝난 후 현장학습의 효과와 흥미도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학습 보고서의 기록 내용과 학생들이 작성한 현장학습 자기평가 기록부, 발표한 소감 등을 분석하여 현장학습의 교육적 가치와 흥미도를 검토하였다.

현장학습이 제주도의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학생이 37명 중 32명으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학습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장학습 활동에 대해 간혹 '재미없었다'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도 있었으나, 대부분 '또 가고 싶다', '몰랐는데 알게 되어서 좋았다', '재미있고 신기했다',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게 되어서 좋았다', '우리가 간 곳은 유명하지 않아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시간이 나면 가

족들과 다시 와 보고 싶고 동생과 부모님께도 설명해 주고 싶다' 등으로 고장에 있는 문화재를 학습하는데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표현하였다.

가장 흥미와 관심이 있었던 학습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관찰하면서 본 문화 유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학습 대상 두 곳을 고른 후 선택한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관심을 보인 학습 대상은 수근 연대(17명), 도원 봉수터(15명), 물래물 마을 방사탑(14명)순이었다. 그 이유로 옛날 사람들이 까마귀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다거나 연대와 봉수대에서 불을 피워 연락을 했다는 사실 등에 흥미로워했다. 하지만 연대와 봉수대에서 옛날처럼 불을 피워 연락해 보고 싶다거나 도대불에서 불을 비추는 것을 보고 싶다는 등의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재미없어 할 것이라는 교사의 염려와는 달리 진지하게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등에서 본 현장학습이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문제점

개발된 현장학습 코스를 적용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일부의 코스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수가 학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다끄내 해신당, 다끄내 도대불, 어영 마을 연덧당, 어영 마을 모살원·동물원, 도두 오름 허릿당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소집단별로 계획을 세워 답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 코스별로 학습 시간은 현장학습 대상이나 활동 내용,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알맞게 조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유적지에는 아직도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장학습을 지도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언몰(영몰)은 바닷가에 있어서 밀물일 때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대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학습 대상이 바닷가와 가깝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용천수는 위생 상태를 믿을 수 없으므로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한다.

## V. 결론

사회과 수업에서의 현장학습은 향토 이해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학생들의 지식 습득과 경험 획득의 장소가 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현장학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고양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장학습이 실행되는 장소나 현장은 학생들이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접하여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자기들의 사고 방식을 통해 얻어진 생활 경험을 반성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또 다른 차원의 생활 경험을 구안하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들이 겪는 일련의 어려움과 학교 수업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으며, 일부 지역의 학교나 학생들에게 한정되기는 하나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현장학습 코스를 개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

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 지역으로 제주시 서부 해안도로 지역(용담 3동~도두 1·2동)을 선정하였다.

현장학습 장소로 선정된 제주시 서부 해안도로 지역에는 제주의 자연환경 요소(용암류 및 화산쇄설층, 용천수, 오름)와 인문 환경 요소 즉, 역사적·생활 문화적 유적(포구, 도대불, 원담, 신당, 포제단, 방사탑, 연대, 봉수터)이 도로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들 중에서 15개의 학습 대상을 선정하여 코스화를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장학습의 코스화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개발할 수 있었다. 첫째는 해안도로변을 몇 개의 소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설정한 A형이다. A형에는 용담 3동, 도두 2동, 도두 1동 등 행정구역 별로 분포하는 학습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A-1형, A-2형, A-3형의 세 가지로 개발하였다. 둘째는 학습 대상의 성격과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별로 구분·설정된 B형을 들 수 있다. B형에는 제주인의 신앙 생활을 토대로 설정한 B-1형, 통신 시설과 어로 시설을 주제로 설정한 B-2형, 제주의 지형 및 용천수를 주제로 설정한 B-3형으로 개발하였다. 셋째는 학습 대상과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3~6학년의 학년별 학습 코스로 개발하였다. C형은 다시 다끄내 포구~수근 연대로 이어지는 3학년 코스의 C-1형, 다끄내 포구~수근 연대~물래물 마을 방사탑1·2호~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으로 이어지는 4학년 코스의 C-2형, 다끄내 포구~어영마을연딩당~물래물 마을 방사탑1·2호~홀개~도두봉 북서쪽 사면 지형으로 이어지는 5학년 코스의 C-3형, 끝으로 다끄내 해신당~도두 오름 허릿당~도두1동 포제단으로 이어지는 6학년 코스의 C-4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현장학습 코스는 학습 주제나 학습 대상의 선택 여부 혹은 시간적 제약 등에 따라서 교사가 얼마든지 코스의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현장학습 코스를 제주시 서부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해 보았다. 그러나 실제 현장학습의 적용 과정에서는 모든 학습 코스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각 코스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상황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시험적인 현장학습의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주로 '재미있었다', '궁금하다' 혹은 '또 보고 싶다' 등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동시에 현장에서의 학습 과정에서도 흥미와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었다. 또한, 현장학습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몰랐었는데 알게되어 좋았다', '관심도 없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게되어 좋았다' 등으로 느낀 점을 정리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과는 반대로, 개발된 학습 코스에서는 현장학습시에 반드시 부차적으로 동반되는 시설 부족이나 상황적 어려움도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도의 너비가 좁아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점, 학습장소가 협소하여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점, 학습 대상의 관리 허술로 인하여 학생들의 조사 활동이나 관찰 활동이 어려운 점, 그리고 해안가의 암반지대를 끼고 있는 학습 장소에서는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주제어

사회과, 향토, 현장학습, 문화재, 제주시 서부해안도로

참고문헌

<단행본>

- 강상배 외, 『신간 사회과 교육론』, 교육출판사, 1996.
-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사회 3~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_\_\_\_\_,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권오정 외, 『사회과 교육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85.
- 몰래물 향토지발간위원회, 『몰래물 향토지』, 몰래물 향토지발간위원회, 2000.
- 문화재청, 『문화재 교육의 이론·방법 및 실제』, 문화재청, 2000.
- 박인현, 『제7차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교육』, 교육과학사, 2001.
- 오영태, 『사회과교육론』, 형설출판사, 1996.
- 용담동지편찬위원회, 『용담동지』, 용담동지편찬위원회, 2001.
- 이덕희, 『제주의 도대불』, 가시아히, 1997.
- 임덕순, 『문화 지리학』, 법문사, 1992.
- \_\_\_\_\_, 『읽고 떠나는 국토여행』, 집문당, 1994.
- 전홍식, 『보는 것만큼 안다』, 내일을 여는 책, 1995.
-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중보판)』, 제주도, 1998.
- \_\_\_\_\_, 『제주의 물, 용천수』, 제주도, 1999.
- \_\_\_\_\_, 『제주 민속 유적』, 제주도, 1997.
- \_\_\_\_\_, 『제주의 방어 유적』, 제주도, 1996.
- \_\_\_\_\_, 『제주의 오름』, 제주도, 1997.
-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주시-』, 제주시, 1998.
- \_\_\_\_\_, 『제주시의 문화유적』,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1992.
- 제주시·제주문화원, 『제주시 옛 지명』,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 최승훈, 『제주의 땅 의미 찾기 포구』, 나라출판, 1996.
- 한면희,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1.
- David W. Van Cleaf, 『사회과 교수-학습론』, 남경희 외 옮김, 교육과학사, 2001.



<논문>

- 권이중, 「현장학습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김남호, 「초등 사회과의 자기주도적학습을 위한 지역조사활동 모형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용신, 「구성주의에 따른 사회과 현장학습방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상례, 「초등 사회과 지역화 현장학습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정광중, 「사회과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지역연구의 실제」, 『제주교대논문집』 제27집, 1999.
- , 「지역 박물관을 활용한 사회과 현장학습 코스의 실제 - 제주교육박물관 야외 전시장을 사례로 -」, 『초등교육연구』 제5집, 2000.
- , 「초등 사회과를 위한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 - 제주시 화북 마을을 사례로 -」, 『초등사회과교육』 제11집, 1999.
- 조규석, 「초등 사회과 교육의 현장 문제와 과제」, 『초등사회과교육』 제9집,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1997.
- 최광호, 「전통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민속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최창석, 「향토 단원의 현장학습 방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홍기대, 「초등 사회과 지역조사활동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지도」, 『사회과교육』 제32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9.

Abstract

Developing Field Learning Course For Understanding Native  
Land in Social Studies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 A Case Study on the West Coastal Roads of Jeju City -

Oh, Young-hee\*

A field learning is a teaching-learning method by which learners can experience various kinds of ways of lives i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field spot through performing a practical activity of learning.

This study attempts to lessen the burdens of teachers who carry on the field learning in accordance with the realistic limits of learning in school.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field learning course from the view of reusing the provincial resources located around the circumference of the province.

Along the west coastal roads of Jeju City(from Yongdam-3dong to Doodoo-1, 2dong), the target-areas of field learning in this study, are distributed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tituents of Jeju island (lava flows(용암류), pyroclastic layers(화산쇄설층), spring water(용천수), parasitic conc(오름)) as well as the humanistic environmental constituents of the historical life and cultures(inlets(포구), dodaebul(도대불), stone-weirs(원담), shrines(신당), altars(포제단), stone pagodas(방사탑), yondaе(연대), fire-signal remains(봉수터)).

This study tried to select 15 learning targets to make them learning courses along this area.

\* Teacher, Hancheon Elementary School, Jeju-si

We have three types of learning courses—Course A, Course B, Course C.

First, Course A covers the small administrative units along the coastal road. Course A has again three sub-courses, A-1, A-2, A-3, which covers administrative units, Yongdam-3dong, Dodoo-2dong, Dodoo-1dong, each.

Second, Course B is selected by the thematic traits of the target areas. Course B-1 is based on the religious lives of Jeju island, course B-2 by the communication and fishing facilities, course B-3 by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spring taters.

Third, Course C is selected by learners and the time of learning according to school grade year 3~6.

Course C-1 is for grade year 1, which covers the region of Inert Dakkeunae to Sookeun Yondae. Course C-2 is for year grade 4, which covers the region of Dakkeunae~Sookeun Yondae~Stone Pagodas of Mollaemool~Northwest slopes of Dodoo Peak. Course C-3 is for grade 5, which covers Inert Dakkeunae~Yondit shrine in Eoyoung village~stone Pagoda in Mollaemool village~Heulkae~Northwest slopes of Dodoo Peak.

Course C-4 is for grade 6, which covers Shrine Dakkeunae~Heritt shrine in Peak Dodoo~Altars of Dodoo-1dong.

This newly developed field learning course is applied to the students of the school grade year 4. The result of application was very positive. At the same time, students reacted that this newly developed learning course had a great effect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native land.

However, we have difficulty applying all the courses we newly developed, and, in a result, we haven't analysed and compared the merits and demerits between all the courses.

In spite of this, we can extract some problems in applying the courses to the students. Those problems are as follows;

- a) Inconvenience in transferring learners.
  - b) Inefficiency of learning activity on account of the narrow learning spot
  - c) Difficulty of learning activity on account of careless maintenance of the learning objects
  - d) Safety problems in the dangerous rock beds of coastal areas.
- Those problems need to be solved one after another hurriedly.

**Key Words**

Social studies, native land, field learning, cultural asset, the west coastal rocks of Jeju City

교신 : 오영희 690-8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 1동 254-1번지 한천초등학교  
(E-mail : oyh1228@hanmail.net 전화 : 016-656-0027)

최초 투고일 2006. 6. 7  
최종 접수일 2006. 7. 11